

3월 학평 수학 1등급, 미적분이 95%

‘확률과통계’ 1등급 4.5% 뿐...국어 1등급 92%가 ‘언어와 매체’ 국수탑 282점 이상 의대 지원권...무전공·의대 증원 등 입시 영향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에서도 수학 ‘미적분’ 강세가 재확인됐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2024학년도 시행 고3 3월 학력평가 가제점 분석’ 결과를 보면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가운데 94.9%가 미적분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 가운데 미적분 응시 비율은 52.7%였는데, 1등급 내 비율이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반면 1등급을 받은 학생 가운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비중은 4.5%에 그쳤다. 전체 학생 중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45.5%)과 견주면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1등급 받은 학생 중 ‘기하’를 선택한 비율은 0.6%로 집계됐다. 전체 ‘기하’ 응시 비율(1.80%)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국어에서도 ‘언어와 매체’가 고득점에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1등급 학생 가운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경우는 91.8%에 달했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8.2%에 그쳤다. 반대로 전체 학생 내 응시 비율은 ‘화법과 작문’이 55.7%로 ‘언어와 매체’(44.3%)보다 높았다. 수학에선 ‘미적분’,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수험생이 1등급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이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현 수능 체제에서는 국어와 수학 점수는 공통과목 점수를 바탕으로 선택과목 점수를 보정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학생들의 ‘언어와 매체’, ‘미적분’ 풀림이 가속화하며 같은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12.48%로 추정됐다.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의 1등급 비율(4.71%)보다 대폭 확대돼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회는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학탐구가 282점 이상일 경우 전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학과는 268점이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탐구가 263점 이상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회는 “대입제도는 작년과 변화가 없으나 의대 정원 증가, 무전공 선발 등이 실행될지, 실행된다면 어떤 전형에 인원이 배분될지에 따라 입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졸업생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3 수험생들은 실제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6월 모의평가 성적 추이까지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 1921개 교묘에서 시행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대, 지역 건축과 도시 현안 소통의 장 열어

건축학전공 학생들 ‘리버시티 도시건축 디자인 워크숍’ 개최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지난 4일 학교 소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연합프로젝트인 ‘리버시티(River+City) 도시건축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이순미)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은 지역대학(광주대 건축학전공, 전남대 건축학부,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호남대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 학생들이 공동주제를 공유하며 지역의 건축과 도시의 현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광주대 건축학전공(전공주임 오성현)은 이번 워크숍의 호스트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4학년 학생 25명이 참여해 다른 학교 교수진 및 학생들

과 1학기 동안 낙후된 영산강 주변과 수변공간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다양한 스케일의 건축설계와 도시설계 안을 최종결과물로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업인 Y프로젝트 관련 도시계획사업, 영산강의 역사, 수변문화시설, 수변도시설계 사례 등 외부전문가의 주제특강이 있었고 서로 다른학교 학생들이 그룹별로 지난 한달 동안 진행한 작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버시티 워크숍은 각 대학을 순회하며 총 3차례 열릴 예정이며, 최종결과물은 오는 10월 광주-아시아 건축대전 행사의 기획전시회 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초3 ‘책임교육학년’ 지정...맞춤 학습 집중 지원

문해력·수리력 검사 20% 내외 학생 교과보충·정서 함양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대상 문해력, 수리력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약 20% 내외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학생에게는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는 ▲방과후 소규모 ‘교과학습 보충’ ▲정규수업·방과후 교과보충-가정 내 학습을 관리하는 ‘튜터링’ ▲학기·학년 전환기 시기인 방학 기간 교과보충 및 정

서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을 키우고 정서를 길러주기 위해서다.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로 교육공동체의 언어·수리력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또 단위학교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는 책임교육학년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학교 현장에서 책임교육학년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초3 담임교사 및 기초학력 업무 대상자 등 300여 명 대상으로 2024학년도 책임교육학년 온라인 설명회 및 사례 연수가 이뤄졌다. 처음 도입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책임교육학년 지원 취지와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뒀

다. 이어 광주우산초 김경식 교사의 AI코스웨어 활용을 통한 가정 연계 지도 사례와 광주학강초 백숙현 교사의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사례가 담긴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광주동운초 차중석 교사는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의 취지와 다양한 학생 맞춤형 지원 사례를 알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책임교육학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초3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AI기반 ‘에듀테크’로 글로벌 인재 키운다

HTHT·메타버스 활용 수준별 학습 지도...코딩교육 진행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HTHT’, ‘메타버스’ 등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수준별 맞춤 에듀테크를 통해 학생들의 탄탄한 기초실력과 취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동강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중심의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며 교수학습 혁신 모델을 구축한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최근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존에서 HTHT(High Touch High Tech) AI기반 영어회화 프로그램 ‘플랭(Plang)’ 수료식을 개최했다. ‘HTHT’는 인공지능을 통해 학생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받아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을 시도한다. 동강대는 지난 1~3월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어플리케이션 ‘플랭’을 통해 개인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진행했다.간호학과 김민주 씨가 최고 학습시간(51시간 35분)으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 4명도 시상했다. 허숙 국제교류원장은 “‘플랭’을 통해 꾸준히 학습한 결과 참여 학생 중 외국어말하기(OPIc) 평가 점수가 최고 스피킹 레벨 417점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동강대는 COVID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춰 AI기반의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

용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2020년부터 ‘HTHT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2022년 7월 아시아교육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비교과 기초학습 향상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에듀’ ▲영어 자기조절학습 콘텐츠 ‘플랭’ ▲기초학력 향상 ‘마타수학’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위한 AI 코딩교육 ‘파이썬’ 등 에듀테크를 도입한 맞춤형 공부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 및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하며 ‘HTHT 대학 컨소시엄 챔피언 대학’에도 선정됐다. 동강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2024년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 랩(Soft LAB)’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에듀테크 소프트 랩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개발, 이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 랩이 신설돼 대학에서도 활용 가능한 AI 코스웨어(Course+Software)를 제공한다. AI 코스웨어는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학습자의 특성과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교육 기부 인증제’·‘명예의 전당’ 시행

학생들에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기관·단체·대학 등 참여 기대

전남교육청이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남교육 기부 인증제’와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교육 기부 인증제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 환원·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발굴해 교육 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효력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12개의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 명의의 ‘교육 기부 인증패’를 지급한다. 또 우수 교육 기부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은 교육 기부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건립·현액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며 현재까지 교육 기부 분야 현역자는 기관·단체 부문 5개소, 개인 부문 4명이다. 신청은 우수 교육 기부 기관·단체와 개인이 각급 학교장, 직속 기관장,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와 개인은 제외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

은 ‘희망동행! 전남교육 기부 누리집(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국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단체, 대학은 물론 재능 있는 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